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2014. 8

충현의 만나

Manna of Choonghyun

가정예배
이사야 · 누가복음 · 요한복음
구역예배(남성구역예배) · G.B.S.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Contents

- 8 매일성경묵상 누가복음 15장 ~ 누가복음 16장
- 12 1과 삶의 이유
- 20 매일성경묵상 누가복음 17장 ~ 누가복음 22장
- 28 2과 유다야 너는
- 36 매일성경묵상 누가복음 23장 ~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1장 ~ 요한복음 4장
- 44 3과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 52 매일성경묵상 이사야 4장 ~ 이사야 9장
- 60 4과 언약 백성으로의 부르심
- 68 매일성경묵상 이사야 10장 ~ 이사야 15장
- 76 5과 물에서 구원받은 이
- 84 남성구역예배

8 August 2014

주 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	4 누가복음 17장	5 누가복음 18장	6 누가복음 19장
10	11 누가복음 23장	12 누가복음 24장	13 요한복음 1장
17	18 이사야 4장	19 이사야 5장	20 이사야 6장
24	25 이사야 10장	26 이사야 11장	27 이사야 12장
31			

9

Septembe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누가복음 15장	2 누가복음 16장
7 누가복음 20장	8 누가복음 21장	9 누가복음 22장
14 요한복음 2장	15 요한복음 3장	16 요한복음 4장
21 이사야 7장	22 이사야 8장	23 이사야 9장
28 이사야 13장	29 이사야 14장	30 이사야 15장

교회 주요 일정

8월 24일

제4차 학습 · 세례식

나의 주요 일정

- ❶ 충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❷ 김동하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사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이 십자가만 붙들게 하소서.
- ❸ 충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기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 ❹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❺ 충현의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천국일꾼이 되게 하소서.
- ❻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 ❼ 1년 1인 1명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 및 동역 교회 전도 지원을 통하여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 ❽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❾ 충현교회의 재단들(유지·동산·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양로원, 가평·함양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 ❿ 장로·안수집사·권사 피택자들이 교육을 통하여 복음으로 온전히 깨져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 ⓫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통하여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이 복음으로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욥 25:2).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딤후 6:15). 또한 사람이 아니시기에 후회가 없으시며,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분으로서(민 23:19) 그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딤후 2:13).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결정된 구속의 방법입니다(행 2:36). 하나님은 십자가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며(고후 13:5),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며,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빌 2:9~11).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여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셨습니다(히 6:17).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와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신 26:19).

2014년 8월을 맞이하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그리움
AA 25

연 봉헌 음반 1권 포함

매일성경묵상

가정예배·구역예배(남성구역예배)·G.B.S.

HOLY BIBLE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본문 · 누가복음 15장 · 찬송가 527장

●●● 주님을 떠난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얻음에 대하여 세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 비유는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얻는 사실을 보여 주는 점에서는 동일한 맥락에 있습니다. 그러나 잃은 양의 비유(1~7절)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8~10절)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죄인을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에게 초점이 있는 반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가출한 자녀가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구원에 대한 인간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11~32절).

주님은 공의로 심판하기에 앞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심판을 유보하시고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을 베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구속의 법을 세우셨습니다. 타락한 죄인을 위해 구속의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이 순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양이자 드라크마와 같은 우리를 찾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죄인 각자가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전 과정을 보여 줍니다. 우리 각자는 탕자 비유의 전반부가 보여 주는 대로,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과 과의 관계 단절로 인한 고통의 모습, 이런 고통 중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기까지의 모습,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기까지의 모습을 경험합니다. 우리 역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측은히 여겨 달려오사(20절) 우리를 끌어 안으시는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눅 15:20)

So he got up and went to his father. "But while he was still a long way off, his father saw him and was filled with compassion for him; he ran to his son, threw his arms around him and kissed him.(Lk. 15:20)

• 쥐엄(16절) : 작은 볼 이란 뜻. 4~5월경 맺는 콩과의 상록수 원뿔 고투리 안에 8~9개의 콩이 열매 맺힌다. 빈민의 주식이나 사료로 사용된다.

기도제목 ①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와 같은 우리를 찾으시는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마음으로 깊이 깨닫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본문 · 누가복음 16장 · 찬송가 302장

●●● 앞으로 도래할 천국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이에 대비하여 현재의 삶을 선용할 것을 강조하는 청지기 비유입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흥청망청 써 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안 주인은 그를 해고하였고 그는 난처한 상황에서 살 길을 찾아 해매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부여받은 힘과 지혜, 재물 등의 모든 것이 마치 자신의 것이며 자신의 능력에 의해 스스로 획득한 것인 양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대하여 청지기로서의 겸손한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의 때까지이며,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됨을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16절).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구약에서 그림자처럼 암시되던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더불어 이 땅에 실제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곳으로 들어가기로 힘써야 합니다(16절 마 11:12). 이는 모든 만민에게 복음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더불어 실존으로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눅 16:15)

He said to them, "You are the ones who justify yourselves in the eyes of men, but God knows your hearts. What is highly valued among men is detestable in God's sight.(Lk. 16:15)

• 모세와 선지자들(29절) : 모세는 모세 오경을, 선지자는 선지서를 가리킨다. 이는 결국 구약 성경 전체를 지칭한다.

기도제목 ① 주인 행세를 하는 악한 청지기가 아닌 믿음으로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참된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② 김동하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사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로, 안수집사, 권사들이 십자가만 붙들게 하소서.

기도노트



유한 의탁 남기다

1990년 1월 1일 발행

주님은 우리를 원점으로 돌리셨다

무서운 태양과 습도로 인해 우리 선교팀은 사역지에 도착하여 적응하기 힘들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하게 하셨다.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 계획한 모든 일정을 멈추게 하신 주님! 가만히 서 있어도 온몸이 땀으로 뒤범벅이 되었다. 사역지 호텔에서 1박을 한 우리는 천둥과 거세지는 빗줄기를 헤치며 작은 도시로 가기 위해 렌트카에 몸을 실었다. 그런데 운전 동역자는 두려움을 느껴 사역지로 우리들을 인도하지 않고, 한국인 선교사에게로 우리를 이끌어 우리들을 당혹하게 했다. '멀고도 험한 길을 우리들이 어찌해야 하나요?' 주님은 우리를 원점으로 돌려셨다.

공항으로 다시 간 우리들은 렌트카를 섭외하여 사역지로 향했다. 만나는 사람마다 모슬렘인 이곳에서의 사역은 두려움보다는 습도와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 우리들을 지치게 했다. 주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했다. 그리고 준비된 영혼을 만나고 모슬렘인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며 주님을 전하기 시작했다. 때론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린 아이 사역을 전담하는 집사님의 고백과 처음 선교지에 와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집사님, 피폐한 이곳에 주님의 복음을 들고 오길 잘했다는 팀원들의 고백 속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박진수(안수집사, 8교구)

1

주간총회에 게재된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삶의 이유

| 초 점 |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라

| 찬 송 |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 본문 | 창세기 50:15~21

⁽¹⁵⁾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¹⁶⁾“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¹⁷⁾“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¹⁸⁾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¹⁹⁾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²⁰⁾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²¹⁾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3 주일

4 월요일

☐ 누가복음 17장

5 화요일

☐ 누가복음 18장

6 수요일

☐ 누가복음 19장

7 목요일

☐ 누가복음 20장

8 금요일

☐ 누가복음 21장

9 토요일

☐ 누가복음 22장

※ 인생의 성공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에 따라 성공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합니까?

요셉의 꿈

※ 요셉의 꿈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창 37:6~11)

	요셉의 꿈	일반적인 꿈
꿈을 이루어가는 주체		
꿈의 성격		
꿈의 목적		

요셉이 꾸었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예고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꾸은 꿈은 결코 요셉 그 자신이 스스로 꾸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요셉이 꾸었던 꿈은 결국 영광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고이기도 했습니다. 이 꿈은 그의 부모와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했듯이,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꿔어 경배할 것을 보여주는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꿈꾸어야 할 하나님의 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에 내가 내 □□을 모든 □□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을 꾸리라”(행 2:17).

요셉의 고난

※ 요셉은 살아가면서 종종 고난에 처하곤 했습니다. 그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1) 창 37:3~4

(2) 창 37:23~24

(3) 창 39:1

(4) 창 39:17~20

요셉은 형제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버림당함과 노예로 팔리는 수모를 겪기도 했으며, 때로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는 정말로 숙명적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이처럼 그에게는 실 새 없이 밀려드는 파도처럼 지속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 요셉이 겪은 고난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 요셉과 예수님의 고난을 비교해 보십시오.

	요셉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
버림당함	형제들에게	
간힘	감옥	
고난의 주체	타의적	
고난의 결과	하나님의 뜻을 이룸	

※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왜 승리의 표지가 됩니까?

요셉의 성공

※ 성경은 요셉의 성공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합니까?(창 50:18~21)

※ 요셉의 성공은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고합니까?

마 20:28 _____

요 19:30 _____

※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 믿음의 기도 |

- 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삶의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하소서.
- ②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늘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 ③ 충현의 온 성도가 신령한 예배를 드림으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교 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20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
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
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24~25

본문 · 누가복음 17장 / 찬송가 · 545장

●●● 예수님의 제자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새 사람이며, 신자는 예수님 안에서 과거의 죄를 씻음받고 이 땅이 아닌 천국을 소망하는 자입니다. 주님은 나병환자 열 명의 치유 사건을 통해 참 구원을 얻을 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나병환자들은 모두 육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중 아홉 명의 유대 출신 나병환자들은 주님을 떠나갔으나 이방인인 사마리아 출신의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주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주님께로부터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총까지 입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의 은혜를 접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육체적 차원에서만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20절).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21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되는 때인 재림과 종말에 있을 일들과 심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22~37절). 인자의 날, 즉 인자가 나타나는 날은 롯의 때와 같으며 그 날에는 뒤로 돌이지 말 것을 명하십니다.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실존이며 현실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인자의 날까지 우리가 살아갈 삶 역시 실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베풀어주신 십자가를 붙잡고, 롯의 처를 기억하며 뒤로 돌이지 아니하는 믿음의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눅 17:31~32)

On that day no one who is on the roof of his house, with his goods inside, should go down to get them. Likewise, no one in the field should go back for anything. Remember Lot's wife!(Lk. 17:31~32)

- 작은 재(2절) : '나이가 어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보잘것없는 자들'이란 뜻.
- 실족(2절) : 새나 짐승을 사냥하기 위해 준비한 덫이나 함정, 영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거짓말로 유혹하여 죄악에 빠뜨리는 악행

기도제목 ① 구원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5 화요일

본문 · 누가복음 18장 / 찬송가 · 459장

●●● 끈기 있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1~8절)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9~14절), 어린 아이들에 대한 일(15~17절), 부자 관리에 대한 일(18~30절)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8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하여 그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없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모습을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9절)로 표현하시며 이와 대조적으로 세리의 모습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어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13절) 하는 자로 표현하십니다.

무의식 속에서 우리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며 멸시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잊기 쉽습니다.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신하던 부자 관리도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26절) 하는 그의 질문 앞에 예수님은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선포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며, 그 길만이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이 은총을 우리에게 열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잊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취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눅 18:34)

The disciples did not understand any of this. Its meaning was hidden from them, and they did not know what he was talking about.(Lk. 18:34)

- 토새(11절) : ‘올켜쥬다’에서 파생한 단어로 ‘남의 물건을 강제로 탈취함’이란 뜻이다.
- 나사렛(37절) : 갈릴리 호수 남서쪽 23km 지점의 고원 도시로 예수님께서 유년 시절을 보낸 곳이다.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은 예수님에 대한 경멸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다.

기도제목 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본문 · 누가복음 19장 / 찬송가 · 258장

●●● 공생애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에게는 아직도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키가 작고 부유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만나 주시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9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추상적인 만남이나 막연한 허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실존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던 두려움과 어둠이 물러가고, 우울이 물러가며 예수님과의 만남이 다시 이루어지는 은총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주님은 하나님의 비밀인 십자가를 이루시기 위해 그 길을 앞서서(28절) 가십니다. 백성의 환호 가운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아버지께 순종하며 그 길을 가십니다. 지금 환호하는 백성이 곧 변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것임을 아셨음에도 예수님은 이를 피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고자 입성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신 것은 죄에 대한 안타까움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예수님의 그 좁은 길, 그 길을 우리도 걸으며 삭개오와 같이 주님 앞에 급히 달려가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10)

For the Son of Man came to seek and to save what was lost. (Lk. 19:10)

·은행(23절) : 원뜻은 ‘네 개의 발’. 원래 음식을 올려 놓는 식탁을 가리켰으나 여기서는 환전성이 돈을 교환하거나 거래하기 위해 펼쳐 놓는 탁자를 의미한다. 고대 은행의 단면을 보여준다.

기도제목 ① 막연하기 만한 상상 속의 예수님이 아닌 살아 계신 실존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② 총천의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천국일꾼이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 예수님께서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눅 19:46)라고 말씀하시며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은 사건에 이어 누가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및 장로들은 유대 종교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파견된 자들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율법의 보전, 가르침 및 종교 의식 집행, 성전 관리와 같은 모든 종교 문제의 관할권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한 첫 질문은 성전 안에서 가르치는 권위에 대한 것과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것을 포함하여 그와 같은 언행을 할 무슨 자격이라도 있는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보기에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 랫 이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며 그곳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신 것은 마땅히 그들로부터 이의를 제기받을 만한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며칠 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고,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서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종교지도자들의 교만은 결국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님께 구원을 주시는 권위가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복음을 믿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눅 20:18)

Everyone who falls on that stone will be broken to pieces, but he on whom it falls will be crushed.(Lk. 20:18)

• **가이사(22절)** : 로마 최고의 정치가인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성. 그의 양자이며 로마 초대 황제인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 이후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호칭이 되었다.

기도제목 ①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를 따르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기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8 깨어 있으라

금요일

본문 · 누가복음 21장 / 찬송가 · 176장

●●●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감람산으로 가시는 도중 어떤 사람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말한 것을 계기로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그리고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종말의 징조로 적 그리스도의 출현(8절), 난리와 소란(9~10절), 자연 재해(11절), 성도에 대한 세상의 박해(12~19절)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세상 끝에 있을 환난과 재림에 대하여 예언을 하시고(20~28절), 종말을 맞는 성도의 자세(29~38절)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33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무화와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자연의 변화를 보면 자연스럽게 계절의 변화를 깨닫듯이 시대의 변화를 보면서 세상 끝 날이 가까웠음을 깨달아야 하고, 매 순간이 주의 재림의 때가 될 수 있기에 늘 깨어서 근신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깨어있지 못했던 제자들이 그 시간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36절)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잠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눅 21:36)

Be always on the watch, and pray that you may be able to escape all that is about to happen, and that you may be able to stand before the Son of Man. (Lk. 21:36)

• 렘넬(2절) : 헬라의 가장 작은 화폐 단위. 노동자 하루 몸값인 1드라크마의 128분의 1이다.

기도제목 ① 세상 속에서 지쳐 잠들어 있는 자가 아닌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 및 동역 교회 전도 지원을 통하여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노트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9 토요일

본문 · 누가복음 22장 / 찬송가 · 232장

●●● 예수님의 수난이 시작되는 이 장은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들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15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자 하는 심정을 잘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내다보고 계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을 주시고 성찬 예식을 제정하심으로써 자신의 죽음이 지닌 의미를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있을 제자들의 배반,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는 사건 등을 이미 모두 알고 계셨지만 제자들을 향해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28절)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회복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고생을 위로하시며, 제자들이 자신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로 세워질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앞으로 닥칠 위험들 때문에 제자들이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것을 격려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주님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이제 유월절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져야 할 과제입니다(16, 18절). 그 때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30절)라는 약속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며 하늘나라에서 베풀어질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눅 22:61~62)

The Lord turned and looked straight at Peter. Then Peter remembered the word the Lord had spoken to him: “Before the rooster crows today, you will disown me three times.” And he went outside and wept bitterly. (Lk. 22:61~62)

• **용자(52절)** : 나무꺾질을 벗어나 만든 지팡이나 목재, 여기서는 문둥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 수비대는 칼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문둥이로 무장하였다.

기도제목 ①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기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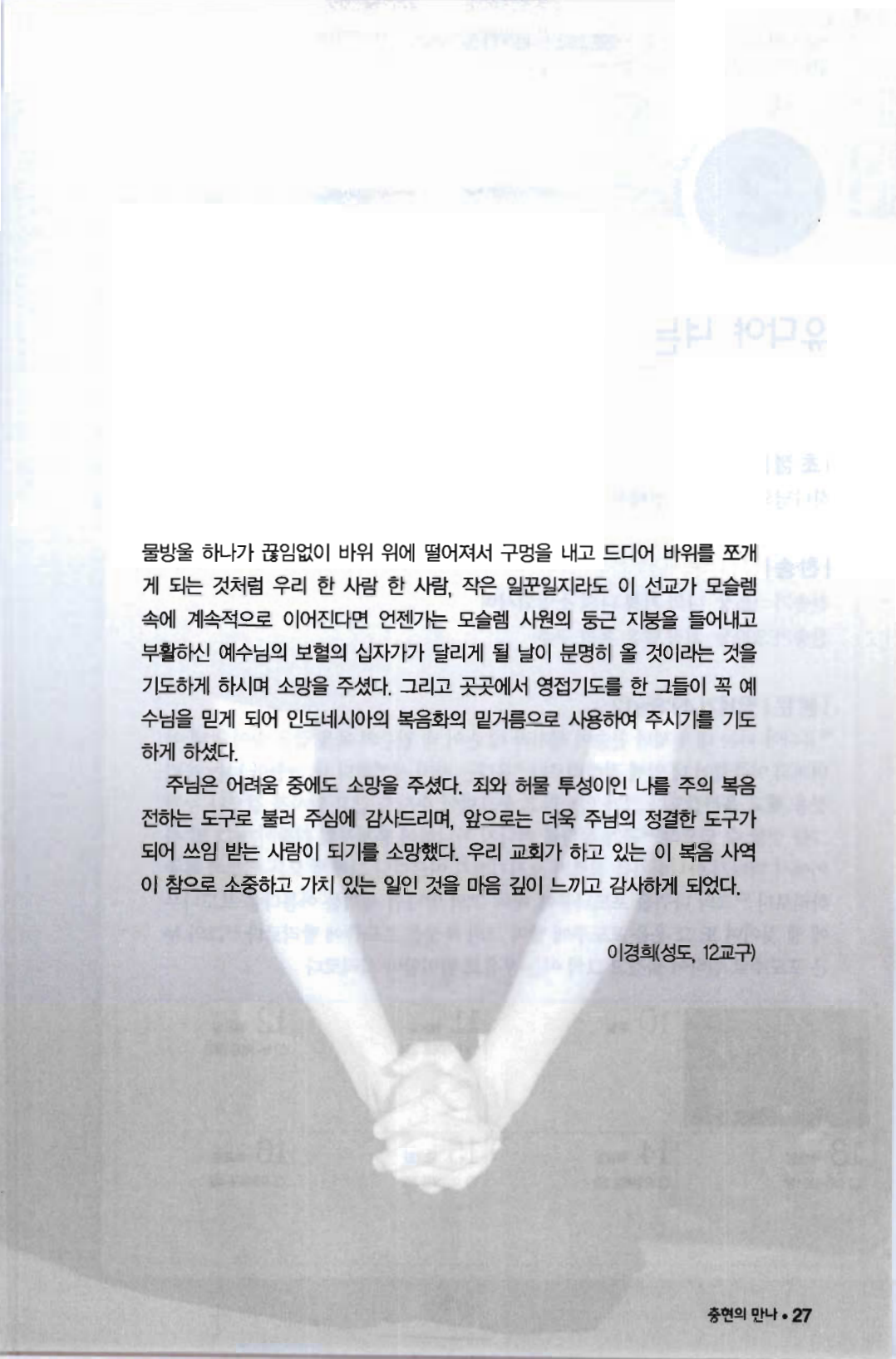
기도노트



참으로 감사했다

첫 선교지가 90%가 모슬렘인 나라이기에 처음부터 많이 긴장하고 각오도 다지고 기도도 많이 부탁하는 등 나름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성령을 의지하고 주께서 항상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갔다. 첫날부터 국내선으로 갈아타려고 기다리는 동안 주위가 모두 희잡을 쓴 모슬렘인 것을 보고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래도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했다. 사역하는 동안 강성 모슬렘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래도 가는 곳곳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날 수 있었다. 같이 앉아 복음을 들어도 한 사람은 거부함은 물론 친구도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였고, 다른 한 사람은 옆의 친구의 강한 만류에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다가도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고 하며 계속 같이 기도하기를 권유하자 마음 문을 열고 영접기도를 했다. 그것을 보며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일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 알게 하셨다.

인도네시아는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전도는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나라였기 때문에 사역 기간 동안 세 번이나 경찰의 제재를 받는 등 참 어려운 상황을 많이 마주쳤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감사하게도 가는 곳곳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들을 만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했다. 뺏속까지 모슬렘인 그들에게 우리를 보내신 것은 그 속에서도 주께서 사랑하시고 예비하신 귀한 영혼들이 있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것임을 매 순간 깨닫게 해 주셨다. 작은



물방울 하나가 끊임없이 바위 위에 떨어져서 구멍을 내고 드디어 바위를 쪼개게 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일꾼일지라도 이 선교가 모슬렘 속에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언젠가는 모슬렘 사원의 둥근 지붕을 들어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가 달리게 될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는 것을 기도하게 하시며 소망을 주셨다. 그리고 곳곳에서 영접기도를 한 그들이 꼭 예수님을 믿게 되어 인도네시아의 복음화의 밑거름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게 하셨다.

주님은 어려움 중에도 소망을 주셨다. 죄와 허물 투성이인 나를 주의 복음 전하는 도구로 불러 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는 더욱 주님의 정결한 도구가 되어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복음 사역이 참으로 소중한고 가치 있는 일인 것을 마음 깊이 느끼고 감사하게 되었다.

이경희(성도, 12교구)

2

주간총회에 게재된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유다야 너는

| 초 점 |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굴복하라

| 찬 송 |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 본문 | 창세기 49:8~12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이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 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10 주일

11 월요일

☐ 누가복음 23장

12 화요일

☐ 누가복음 24장

13 수요일

☐ 요한복음 1장

14 목요일

☐ 요한복음 2장

15 금요일

☐ 요한복음 3장

16 토요일

☐ 요한복음 4장

사랑받지 못한 여인인 레아의 아들

유다의 어머니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그녀가 유다를 낳기 전까지 출산한 세 아들의 이름을 통해 절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름	이름의 뜻	성경 구절
르우벤		창 29:32
시므온		창 29:33
레위		창 29:34

※ 유다의 이름의 뜻과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창 29:35 _____

믿음의 가정을 이루지 못한 유다

※ 유다의 경건하지 못한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1) 이방 여인과의 결혼(창 38:1~2)

(2) 자녀의 양육(창 38:7~10)

육체의 소욕에 빠진 유다

※ 유다에게는 가정 문제 외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창 38:15~18)

놀라운 축복을 받은 유다

※ 유다는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가장 놀라운 메시아적 예언을 축복으로 받게 되었습니다(창 49:8~12).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에게 이처럼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택

우리는 창세기 3:15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씨가 셋에서부터 노아를 거쳐서 셈에게 이어지고 다시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에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격으로 따지자면 유다보다는 자신의 민족에게 큰 공로를 세운 요셉에게 그 언약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아적인 약속은 이처럼 자격 없고 경건하지 못한 유다에게로 향했고, 이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적으로 형편없는 죄인의 혈통에서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왕을 낳으니라”(마 1:3~6).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 세 명의 경건하지 않은 이방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유다의 며느리 ‘□□’과 기생 ‘□□’ 그리고 이방 여인인 ‘□’입니다.

※ 이러한 족보 속에서 가장 신성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이 참으로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반응

- (1)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 어떤 것도 더할 수 없습니다.
- (2)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높고 낮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높고 낮음을 자주 경험합니다. 그래서 자격이라는 문제에 자주 부딪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 (3) 하나님의 절대적인 때문에, 전혀 자격이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선택이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은혜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믿음의 기도 |

- 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늘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②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이 넘치게 하소서.
- ③ 총현교회의 온 성도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증거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19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16

[illegible]

※ 설교 중에 받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으신 성도님은 간증문을 써서 <주간충천>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 552-8200(☎ 348, 349) / E-mail. psalms1715@naver.com

본문 · 누가복음 23장 / 찬송가 · 235장

●●●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죽는 것에 대한 초자연적 모습으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습니다(44절).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45절), 이방인인 백부장은 예수님을 의인으로 고백했습니다(47절).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구속 사역이 완전히 성취되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벽이 제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였음을 증언하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작정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라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42절). 평생에 행한 일은 죄뿐인 행악자가 죽음을 앞두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는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의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행악자는 예수님 안에서 메시아의 모습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하여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43절)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선언 받는 은총을 입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행한 일은 죄뿐입니다. 한 영혼을 향하신 예수님의 선언과 천국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도 임하기 원합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 두니(눅 23:52~53)

Going to Pilate, he asked for Jesus' body. Then he took it down, wrapped it in linen cloth and placed it in a tomb cut in the rock, one in which no one had yet been laid. (Lk. 23:52~53)

• 빌라도(1절) : 유대, 사마리아, 이두매를 다스린 5대 총독.

• 구레네(26절) :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중요 도시로서 헬라인들에 의해 세워진 도시였으나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집단 거주했다.

기도제목 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12 화요일

본문 · 누가복음 24장 / 찬송가 · 171장

●●● 예수님의 부활(1~49절) 및 승천(50~53절)으로 누가복음을 끝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각 복음서의 끝을 장식하고 있는 최종 메시지이지만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가 아닌 실제 사건임을 강조하며, 구속사적 의미를 분명히 밝혀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보혜사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 및 승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누가가 사도행전에 기록한 성령의 역사와 교회의 태동 및 성장 과정의 배경이 됩니다.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5절)라: 천사의 말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예수님 또한 살아 계십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살아 계신 하나님, 살아 계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주님은 찾고 있는 믿음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 계십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17절)에 대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18절) 하는 글로바의 대답은 예수님에 관한 사건이 예루살렘 안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큰 사건이었으며 실제 일어난 일임을 증명해 줍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동행하여 주신 예수님은 늘 살아 계셔서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래(눅 24:48)

You are witnesses of these things. (Lk. 24:48)

• 이집트 레(13절): 원문에는 60스타디온, 스타디온은 대략 180m, 따라서 60스타디온은 약 11km이다.

기도제목 ① 늘 살아 계셔서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매 순간 느끼게 하소서.

②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통하여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이 복음으로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본문 · 요한복음 1장 / 찬송가 · 80장

●●●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1절). 창세기 1:1을 연상시키는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언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시작인 천지 창조의 기사로 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에 이르러 계시가 완성된다고 볼 때 말씀은 ‘로고스’로서, 계시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1절)라는 말씀은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는 사실로서 삼위 일체 교리의 근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1절). 이와 같이 3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1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들로써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를 압축 요약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14절)라는 말씀은 9절의 성육신 사건을 다시 언급하는 내용으로 여기서는 ‘육신’은 그리스도의 완벽한 성육신을 나타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14절)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실존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선언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18절)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로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만나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50절). 또 “하늘이 열리고”(51절)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야곱이 베엘에서 꿈과 연관되며(창 28:10~22)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그동안 죄로 인해 막혔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뜻합니다. ‘열려진 하늘’이 상징하듯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창 28:12)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요 1:34)

I have seen and I testify that this is the Son of God. (Jn. 1:34)

• 말씀(1절) : ‘로고스’(헬. 레고) [내가 말한다]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원뜻은 ‘지혜롭게 말하는 능력, 혹은 ‘이성’이다. 여기서는 지혜의 근본이시자 인격적인 분으로서의 성자 예수를 말한다.

기도제목 ①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제물이 되어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소서. ② 총천교회의 지체들(유자·동생·복자)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양로원, 기쁨·함양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14 목요일

본문 · 요한복음 2장 / 찬송가 · 459장

●●● 가나의 혼례(1~12절)와 성전을 깨끗이 하신 사건(13~25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자연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지배할 수 있는 신적 능력의 소유자이심을 보여 줍니다. 또한 이 표적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이 장차 천국의 혼인 잔치에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누리게 될 은혜의 풍성함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후반부에 기록된 성전 정화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당신의 몸에 비유하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온 세상에 입증해 보일 최대의 표적임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기적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였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목격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18절)라면서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도 유대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좇기보다는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믿음이 없나이다. 표적을 보아야 믿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요 2:21~22)

But the temple he had spoken of was his body. After he was raised from the dead, his disciples recalled what he had said. Then they believed the Scripture and the words that Jesus had spoken. (Jn. 2:21~22)

• 돈 바꾸는 사람(15절) : 환전상 당시 성전에는 생명의 속전을 낼 수 있도록 헬라돈이나 로마돈을 유대 화폐로 교환해 주면서 시세 차익을 착복하는 악덕 환전상들이 있었다.

기도제목 ① 성경을 보아도 믿지 못하는 믿음없음을 버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소서. ② 장로 · 안수 집사 · 권사 과묵자들이 교육을 통하여 복음으로 온전히 깨져 그리스도의 골짜기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본문 · 요한복음 3장 / 찬송가 · 251장

●●●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보다 표적(요 2:23) 자체에 더 큰 관심을 드러내는 니고데모를 향하여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3절)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영적인 도전 앞에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의 마음은 불편합니다. “우리는 거듭났는가?” 이 질문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는가?”와 동일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거듭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니고데모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떠났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그 후에”(22절)라는 구절이 있기 전까지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며 니고데모의 방문에 대한 결론을 말씀합니다(16~21절). 우리가 거듭남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보혈로 사하심을 입은 은총을 체험한 자만이 거듭남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으며 거듭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 죄가 있으면 회개합니다. 어떠한 죄의 모습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딱 닫힌 마음을 열고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 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요 3:18)

Whoever believes in him is not condemned, but whoever does not believe stands condemned already because he has not believed in the name of God's one and only Son. (Jn. 3:18)

• **보내신(17절)** : 그리스에서 왕이 특별한 사명을 주어 사신을 파견할 때 사용한 표현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인류 구원에 대한 사명을 부여받고 성육신하였음을 보여준다.

기도제목 ①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 “네 남편을 불러 오라”(16절). 이 말씀에는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영적 도전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자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자기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인생의 거친 삶에 지쳤고 목말랐으며 수 치심에 아무도 만날 수 없어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 남들이 다 쉬는 정오에 물을 길으러 왔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 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15절). 여자는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며 생수에 흥미를 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늘 갈증 없이 생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였고, 또한 물 길러 다니는 수고도 면하려 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육적 요구를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은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 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여자의 첫 증거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29절)입니다.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모두 말씀하였다고 증언하는 여자의 말에 그 동네의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39절).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고 이제 그들은 “우리가 믿는 것은 …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앎이라”(42절)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사마리아의 수가 성 여인과 같이 생애 목마름과 갈증이 낫던 삶입니다. 이러한 목마름과 갈증은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목마르지 않고, 우리의 양식인 주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요 4:34)

“My food,” said Jesus, “is to do the will of him who sent me and to finish his work.” (Jn. 4:34)

• 사마리아인(4~5, 7, 9절) : 인종상 누구인지를 밝히기 어려우나 앗수르가 북왕국을 정복한 이후 그들이 이방인들을 사마리아에 ‘이주’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마리아의 유대인 중 일부는 이주해 온 이방인들과 결혼했는데 그들의 후손이 사마리아인이라 불린 것이다. 이방인에게 물든 그들의 풍습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유대인의 적대감은 계속되었다.

기도제목 ① 예수님을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참 구주로 믿게 하소서. ② 김동하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사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이 십자가만 붙들게 하소서.

기도노트



이단 규정 기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이단은 성경과 역사적 정통교회가 믿는 교리를 변질시키고 바꾼 다른 복음을 말한다. 사이비는 이단적 사상에 뿌리를 두고 반사회적, 반윤리적 행위를 하는 유사 기독교를 말한다. 이와 같은 이단을 규정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다.

1. 성경 성경의 가르침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한 개인의 판단이나 신학적 견해가 이단을 정의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2. 교리와 신학 이단, 사이비는 본질적으로 교리적인 문제로서 성경과 역사적 정통교회가 믿는 교리를 변질시키고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성경 66권이 이단의 판단 기준이며 근거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사도신경에 의 존하며, 신학적으로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 교리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 총회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크 신앙문답 또한 이단을 판단하는 기준의 근거로 삼는다.

3. 기독교의 근본 원리

- 1) 성경관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자의 삶의 규범이며 삶의 법칙이다.
- 2) 하나님의 계시 사상 자연계시와 초자연계시에 구분하고 초자연계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역사적 사건을 뜻한다.
- 3) 신관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 4) **인간 이해**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타락이 원죄로 자손들에게 전가되어 본질상 전적으로 부패하여 영적으로 무능한 자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자녀가 되었으나, 아직은 온전한 모습이 된 것은 아니다.
- 5)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론 역시 중요한 기준이다. 초대교회 영지주의자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인성을 간과하고 신성만을 강조할 때 문제가 된다. 그리고 예수의 동정녀 탄생에 관해서도 분명한 관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 6)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또한 중요한 기준이다.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입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 7)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는 역시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전제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일한 구세주이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이름을 주시지 아니했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이다(요 3:16 ; 행 4:10~12, 16:31).
- 8)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 속죄제물이 되셨음을 믿는다(요 14:6 ; 히 4:14~16, 9:23~28).
- 9) **구원**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얻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다(롬 1:17, 3:19~31).
- 10) **교회** 지상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도들은 그 몸의 자체의 관계로 공동체를 이룬다. 그리고 신자는 지상에 세워진 교회에 속함과 교회가 제시하는 복음적인 사역에 헌신 봉사해야 한다.
- 11) **종말** 지상의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믿으며 그리스도가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성도들은 신실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한다.
- 12) **성도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신뢰하며 성취하실 때까지 소망하며 인내로 기다리며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산다.

3

주간충현에 게재된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 초 점 |

하나님의 주권으로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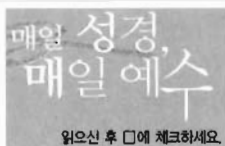
| 찬 송 |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 본 문 | 창세기 49:8~10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이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17 주일

18 월요일

☐ 이사야 4장

19 화요일

☐ 이사야 5장

20 수요일

☐ 이사야 6장

21 목요일

☐ 이사야 7장

22 금요일

☐ 이사야 8장

23 토요일

☐ 이사야 9장

네 형제의 찬송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창 49:8).

※ 유다의 계보는 어머니 레아의 고백대로 성취되었습니다(창 29:35).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자 새끼로다

창 49:9 _____

새끼 사자는 세월이 흐르면 장차 짐승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유다의 후손 가운데서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왕이 나올 것을 예고합니다.

※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예언적 축복은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것을 통해 이 축복은 성취되었지만, 이 세상의 가장 악하고 강력한 마귀의 권세를 정복할 왕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예언은 완성되었습니다.

규가 떠나지 아니하며 실로가 오시기까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창 49:10).

※ 여기서 ‘규’(the scepter)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 왜 이스라엘이 아닌 ‘모든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까?

※ 메시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통치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안식을 주시는 이

※ 창세기 49:10에서 '실로'는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가져온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안식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셨습니다(눅 4:16~21). 그러므로 유다를 향한 축복, 즉 실로가 오시기까지의 축복의 예언은 장차 오실 참된 메시아와 그가 가져올 평강을 예고한 것입니다.

사 9:6 _____

천사들도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눅 2:14 _____

그리고 마침내 이 땅의 참된 메시아로 오신 평강의 왕,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안식을 선포하셨습니다.

마 11:28~30 _____

요 14:27 _____

영원한 찬송이 되실 이

유다에게 약속되었던 메시아는 장차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는 이미 영원한 평화와 안식이 깃든 ‘’을 선포하였고(마 4:17), 을 통해서 이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지파의 사자 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계 5: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다”(계 11:15).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 2:9~11).

※ 가장 좋아하는 찬송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믿음의 기도 |

- ① 충현의 온 성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송하고 높이게 하소서.
- ②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 ③ 새벽 기도회와 금요 찬양 기도회에 충현의 온 성도가 동참하게 하소서.

본문 · 이사야 4장 / 찬송가 · 608장

●●● 하나님을 외면하여 공의와 질서가 사라지고 부패와 강포가 횡행하는 시대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칫 의심과 회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끝까지 시온에 남아 있는 자들(3절), 즉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는 시온(예루살렘)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는 자들에게 그들이 마침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4~5절).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갖는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의인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절의 “그 날에”가 심판의 날이요 수치의 날이며 서 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날이라면, 2절의 “그 날에”는 회복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며 여호와와 짝이 되는 날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유다를 회복시키실 때를 의미합니다. ‘여호와와 짝’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구속 사역을 뜻하며, ‘그 날’은 시험과 역경을 인내한 후 마침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고 살아 남은 자들을 통해 유다가 회복될 날을 말씀합니다. 그 날에는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이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것입니다. 남은 자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인간을 향한 끝없는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그날에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우리의 죄악을 씻기실 것입니다. “너희도 같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약 5:8). 그날을 늘 기다리며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사 4:3)

Those who are left in Zion, who remain in Jerusalem, will be called holy, all who are recorded among the living in Jerusalem. (Is. 4:3)

• 여호와와 짝(2절) : 다윗에게 약속된 혹은 곧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를 뜻한다.

기도제목 ① 예수님을 따라가며 복음에 순종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 포도원의 비유(1~7절)를 통해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돌보심과 기대를 저버린 채 먹지도 못할 들포도 열매를 맺은 유다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농부는 하나님을 의미하며,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들포도 열매는 그들의 악한 행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먼저 술선 수범하여 공평과 의를 추구하며 실행해야 했는데, 그들은 도리어 부정과 착취의 주범이 되어 끊임없는 사리사욕(8절)과 방탕한 쾌락을 추구(11~12절)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가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어 궁핍함과 사망의 체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맺어야 할 믿음과 순종의 열매는 맺지 못한 채 도리어 쓸모없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맺는 삶의 열매는 본질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딤후 2:14). 지금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가(사 5:4)

What more could have been done for my vineyard than I have done for it? When I looked for good grapes, why did it yield only bad?(Is. 5:4)

• 들포도(2절) : 거칠고 상품 가치가 없는 야생 포도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출발한 유다가 범죄와 타락으로 빠진 것을 말한다.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소서.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본문 · 이사야 6장 / 찬송가 · 495장

●●●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임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님의 일에 합당한 종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선지자에게 소명을 주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8절).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받은 자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은 언제든지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1~5절),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8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사야는 자신의 죄성과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5절).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위한 종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이사야의 반응과 동일합니까? 마지못해 하거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봉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복음의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사실에 깊은 감사와 찬양이 삶 속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사 6:8)

Then I heard the voice of the Lord saying, “Whom shall I send? And who will go for us?” And I said, “Here am I. Send me!”(Is. 6:8)

• **입술이 부정함(5절)**: ‘입술’은 말을 쏟아내는 곳이며, ‘말’은 생각과 사상의 표현이다. 그런 점에서 본문은 ‘전인격적인 부패’와 ‘죄악’을 강조한 표현이다.

기도제목 ① 매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② 충현의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천국일꾼이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 우리는 위기와 곤경의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 인간의 힘과 방법을 먼저 찾게 될 때가 많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 쳐들어오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앓수르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3~9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징조를 보여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10~11절),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오히려 뇌물을 주고 앓수르와 동맹을 맺었습니다(왕하 16:7~19). 결국 아하스의 이러한 계략은 남왕국 유다를 앓수르의 속국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와 약속이 있는데도 결국 인간의 방법과 힘을 더 의지했던 아하스의 범죄에도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십니다(14절). 이처럼 아하스의 큰 범죄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변함없이 분명하게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십자가의 그늘 아래 안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주체가 되는 노력과 행위를 벗어나고 예수님께 의뢰하는 자들은 임마누엘의 축복과 참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진정한 안식과 놀라운 평안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 7:14)

Therefore the Lord himself will give you a sign: The virgin will be with child and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will call him Immanuel. (Is. 7:14)

• **스알야숨(3절)**: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 이사야의 장자의 이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리라는 회복과 은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상징적 이름이다.

기도제목 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본문 · 이사야 8장 / 찬송가 · 543장

●●●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보호에 대한 약속에도 앗수르를 의지한 남유다를 도리어 앗수르를 통해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5~15절). 우리가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 맡길 때 우리는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실로아 물과 큰 하수의 비교는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5~8절).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은 고요하고 부드러우며 풍요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상징하고,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는 외적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앗수르 제국을 상징합니다.

남왕국 유다 백성은 이처럼 고요하게 흐르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외형적으로 엄청난 힘을 과시하였던 앗수르를 의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앗수르는 남왕국 유다의 진정한 보호와 안전을 제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남왕국 유다가 붕괴되는 결정적인 원인만을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은 처음에는 다 그럴듯하게 보여도 결국에는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의지하던 바로 그것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사 8:13)

The LORD Almighty is the one you are to regard as holy, he is the one you are to fear, he is the one you are to dread.(Is. 8:13)

•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10절) : 임마누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나타내는 말씀으로서 이 메시지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다.

기도제목 ① 나에게 있는 어려운 일 가운데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 및 동역 교회 전도 지원을 통하여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노트

●●●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한 말씀이 기록된 장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16절).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입니다. 예수님의 어깨에 멘 ‘정사’의 의미는 ‘통치’를 뜻하며, ‘기묘자’와 ‘모사’는 ‘기묘한 모사’라는 뜻으로서 ‘어느 누구도 감히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계획을 세우실 것이며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신적인 계획의 누림과 성취’를 의미하며,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아버지’와 같은 그의 백성들에게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있습니다(롬 8: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롬 5:1).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자는 영적인 평화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영적인 평화란 구원을 뜻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참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사 9:2)

The people walking in darkness have seen a great light; on those living in the land of the shadow of death a light has dawned. (Is. 9:2)

• 정사(16절) : 주권 통치자로서의 권위

• 모사(16절) : ‘조언하다, 권고하다’라는 뜻으로 ‘지혜로운 상담역’이란 뜻이다

기도제목 ①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영혼을 붙들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거선 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십자가

십자가는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의 중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무엇을 행하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선포합니다. 이 일은 이미 결정된 일이었고, 십자가 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구원의 사건이었기에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고백하였고 오직 이것만을 설교한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메시지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상에서의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산실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십자가를 그려 보십시오. 예루살렘 밖 '갈보리'라고 불리는 언덕 위에 놓여진 세 개의 십자가들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그가 너무 빨리 운명하신 것에 대해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계신 그분이 누구였는지를 분명히 파악하지 않고는 십자가 상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있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한 인간이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바라보면 그는 양 옆에 달려있는 다른 두 강도들과 같이 한 인간이셨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 자신을 자랑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할 것입니다.

(마틴로이드 존스, 십자가, 두란노)

4

주간총회에 게재된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언약 백성으로의 부르심

| 초점 |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르신 백성임을 깨달으라

| 찬송 |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 본문 | 출애굽기 1:5~7

⁽⁵⁾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칠십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⁶⁾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⁷⁾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24 주일

25 월요일

☐ 이사야 10장

26 화요일

☐ 이사야 11장

27 수요일

☐ 이사야 12장

28 목요일

☐ 이사야 13장

29 금요일

☐ 이사야 14장

30 토요일

☐ 이사야 15장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자손은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칠십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하고 매우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출 1:5~7).

※ 이들이 이처럼 번성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애굽 땅의 두려움이 된 언약 백성

칠십여 명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매우 번성하여 애굽의 바로가 위협을 느낄 만큼 큰 민족으로 성장했습니다(출 1:8~10).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겪을수록 더욱 번성했습니다(출 1:12).

※ 두려움을 느낀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 히브리 산파들은 무엇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의 두려움이 될 언약 백성

창 12:2 _____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은 이후 애굽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까지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창 15:16 _____

※ 기생 라합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수 2:10~11)

※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바로와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근심을 줄 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두려움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도전받는 언약 백성

※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번성으로 인하여, 바로는 마침내 가장 극단적인 인구 감축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태어난 사내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출 1:22). 바로의 이러한 극단적인 정책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 사탄의 지속적인 공격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언약 백성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구속 언약은 사백 삼십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점차 잊혀져갔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그의 자손들에게 희미한 옛 이야기로 들려졌을 것이며, 그들은 애굽 땅에서 점점 정착하여 적응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애굽은 그들이 머물러 있어야 할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가나안으로 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깨우셨습니다.

※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셨습니까?(출 2:23~25)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키우시며, 약속대로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든 이스라엘을 깨우시고, 자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해방시키시며, 마침내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언약 백성의 연약함과 무지함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지혜로 성실하게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 믿음의 기도 |

- 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 ② 해외 단기, 중기 선교 사역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 ③ 동역 교회 전도 지원으로 민족 복음화를 이루게 하소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23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6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 <중현의 만나>를 통해 매일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주간중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 552-8200(# 348, 349) / E-mail. psalms1715@naver.com

본문 · 이사야 10장 / 찬송가 · 147장

●●● '남은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22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9:27~28에서 인용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부패한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탐욕과 만족을 위해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를 억압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화를 선고 받는 방법과 재판관들은 불의한 법령을 만들었고, 제정된 법을 실행함에 있어서 불공평하게 판결하였으며, 약한 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토색하며 약탈하였습니다(1~4절). 이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포로된 자 아래에 구부릴 것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업신여기고 고아와 과부를 밟던 자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4절).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실 때 그 도구로 이방 민족을 사용하시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5~34절). 이사야 선지자는 앗수르의 침략을 애굽의 압박에 비유하고, 남은 자의 회복을 그 압박에서 해방된 출애굽 사건에 비유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20~34절). 이스라엘의 극심한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남은 자'를 남기신 분도 역시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도 십자가 앞에 '남은 자' 되는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사 10:22)

Though your people, O Israel, be like the sand by the sea, only a remnant will return. Destruction has been decreed, overwhelming and righteous. (Is. 10:22)

• 갈그미스(9절) : 유브라데 강 유역에 있던 무역 중심 도시. 원래 헷족속의 근거지였으나 앗수르에 침탈당하고 바벨론에 궤파되어 멸망했다.

기도제목 ① 남은 자로 부르시는 은총을 깊이 깨닫게 하소서. ② 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예언함과 동시에 그날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라는 말씀은 곧 다윗의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사야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의 근본이신 여호와와의 영이 메시아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예언하였는데(2절), 이러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메시아가 세상을 자신의 뜻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의대로 심판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1~5절).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건설될 공의의 왕국이 완전한 왕국임을 보여주고 있는데(6~9절), 이 나라는 상함과 해함이 없고 모든 창조 질서가 완전히 회복된 나라입니다. 이어서 본문 10절부터 16절에는 메시아를 통하여 백성을 구원하시고 모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메시아 왕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는 이 땅에서 두 세계를 실존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사 11:1)

A shoot will come up from the stump of Jesse; from his roots a Branch will bear fruit. (Is. 11:1)

· 이새의 줄기(1절): ‘줄기란 나무를 베어 넘어뜨리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로서, 『쓰러진』 나무 줄기를 말한다. 본문은 왕이 되기 전에 비천하고 연약했던 다윗의 모습과 동시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낮고 비천한 모습을 예시한 내용이다.

기도제목 ① 천국에 대한 믿음의 확신과 소망을 주소서. ② 총현교회의 재단들(유지·동산·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암로원, 가평·함양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본문 · 이사야 12장 / 찬송가 · 150장

●●●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감사하며 기뻐하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만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1~3절). 이러한 구원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 및 부활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값없이 주시는 이 구원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격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고 매 순간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2절)라고 고백하고 외쳐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게 될 것입니다(3절).

또한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4~5절)라는 말씀대로 성도들은 선교와 전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을 세계 만민과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죄악의 문제가 해결된 구원받은 자에게는 주님만이 유일한 자량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사 12:2)

Surely God is my salvation; I will trust and not be afraid. The LORD, the LORD, is my strength and my song; he has become my salvation. (Is. 12:2)

· 극히 아름다운 일(5절) : 문자적인 의미는 ‘올라가다, 증가하다, 영화롭다’이다. ‘영광, 위엄, 은총’이란 뜻으로서, 여기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랍고도 은혜로운 일을 의미한다.

기도제목 (1) 주이신 그리스도가 내 삶을 지배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2) 장로 · 안수집사 · 권사 피택자들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으로 온전히 깨져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본문 · 이사야 13장 / 찬송가 · 180장

●●●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으로 바벨론에 임할 심판과 멸망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많은 대적자를 치는 역할을 하였으나, 그 역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바벨론 멸망의 예언은 이사야가 예언한 지 약 100~150년 후 (B.C. 539년경)에 성취되었습니다. 본문의 1~5절은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많은 나라에서 몰려올 것임을 예언하며, 6~13절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가 표출되어 세상의 악한 자들이나 하나님께 거만한 자들이 멸망해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때 그곳에는 고통과 슬픔, 살육, 잔혹함이 가득하게 됩니다. 또한 하늘이 떨리고 땅이 흔들리는 것은 모든 곳에 가득했던 악이 파괴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4~22절은 하나님의 군대에 의한 공격을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며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살육을 일삼았던 바벨론은, 결국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처절하게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와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 역시 하나님 외에 인생의 것들을 더 사랑하거나 마음 안에 교만이 가득하지 않은지 돌아보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 길만이 멸망받지 않는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사 13:6)

Wail, for the day of the LORD is near; it will come like destruction from the Almighty. (Is. 13:6)

• 바벨론(1절) : B.C. 729년부터 바벨론은 앗수르 제국의 일부인이었다. 앗수르 왕은 '바벨론 왕'이라는 호칭을 취했다. 바벨론은 그후 아버지 나보폴라살이 죽은 후 아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바벨론 제국의 수도가 되었다.

기도제목 ① 우리에게 임할 여호와와의 날에 애곡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본문 · 이사야 14장 / 찬송가 · 393장

●●●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심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는데, 바벨론의 멸망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이방 나라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섬기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1~2절). 즉 바벨론에 남아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강대국을 조롱하게 될 것이며, 바벨론은 영원히 멸망을 당하는 비참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3~23절).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앗수르와 블레셋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24~32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언젠가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그 백성을 끝까지 불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강성하였다 할지라도 결국은 패망에 이르게 됩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강자가 진정한 강자가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며, 이 약속이 내게도 성취될 것임을 확신하기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사 14:27)

For the LORD Almighty has purposed, and who can thwart him? His hand is stretched out, and who can turn it back?(Is. 14:27)

• 아침의 아들 계명성(12절) : 일차적으로는 교만한 바벨론을, 궁극적으로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을 말한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가 라틴어 성경에서 루시퍼(Lucifer, '빛을 가져오는 자')로 번역되면서 이 구절에 대한 초기 영어 번역(Lucifer)의 기원이 되었다.

기도제목 ① 십자가를 통해 보여 주신 사랑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게 하소서. ② 김동하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사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로 안수집사, 권사들이 십자가만 붙들게 하소서.

기도노트

●●● 모압은 롯의 후손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하게 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미워함은 물론 실제로 군사를 동원해 괴롭혔습니다. 이러한 모압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과 같이 어떠한 징조가 보이다가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하룻 밤에 황폐해졌습니다(1절).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고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치욕을 당하거나 마음이 심히 상한다는 표시입니다. 이렇듯 모압인들은 그들의 성읍의 최후를 보면서 슬퍼하였습니다(1~4절). 또한 모압인들은 앗수르의 침략을 받아 남쪽 예돔으로 피난하지만, 니므림의 들은 마르고 살아남은 자들도 사자에게 쫓기듯이 죽음의 공포에서 헤어날 줄을 모르게 되었습니다(5~9절).

하나님의 심판은 그 대상이나 죄의 정도에 대하여 정확하고 공정하며 악인에 대하여 반드시 이루어지며 철저하게 집행됩니다. 이 심판은 모압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에 대해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멸망의 자리에 서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를 부인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거리에서는 굵은 베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사 15:3)

In the streets they wear sackcloth; on the roofs and in the public squares they all weep, prostrate with weeping. (Is. 15:3)

• 모압(1절) : 모압은 사해 정동쪽에 있는 목이 좁고 긴 땅이다. 그 주민들은 이스라엘 족속의 이웃이었다. 모압 족속의 조상 모압은 롯이 자신의 큰 딸에게서 난 아들이었다.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멸망의 자리에 가지 않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삶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복음 선포가 구원을 결정함

복음 선포는 절박하게 전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버지를 장사지낼 상황에서도 그것을 제치고 복음부터 전해야 합니다(눅 9:59~60). 주 예수님은 아버지의 장례보다 복음 선포를 앞세우셨습니다.

복음 선포는 교회 밖의 불신자들을 향하여 힘써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 선포는 교회 안에서도 힘써 해야 할 일입니다. 복음 선포가 생명의 양식이므로 언제나 교회 설교 강단에서는 복음 선포를 힘써야 합니다.

따라서 복음을 선포하면 사람들의 생명이 새 힘을 얻어 살아납니다. 다 죽어가다 기도 복음 선포를 들으면 생명의 양식을 받은 것이므로 힘 있게 일어섭니다. 복음을 선포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의 생명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솟아오릅니다. 사람들을 예수 믿는 자들로 굳게 서게 하려면 복음 선포를 해야 합니다.

복음 선포만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합니다.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교회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20세기 중반까지 기독교 보수의 최후 아성이라고 자랑하던 로마 교회가 완전히 현대화되어 배도를 완료하였습니다. 배도만 완료한 것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종교를 하나의 종교로 만들려고 앞장서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복음 선포를 하지 않았으므로 생겨난 당연한 귀결입니다.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대부분의 개신 교회들도 로마 교회와 동일한 마차에 탔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고 권력과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한 가지 무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단 없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만이 배도와 세계 단일 정부 수립 계획을 깰 것입니다. 복음 선포만이 세상 나라들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듭니다. 복음 선포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 제8차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2014.6.24.)
'죽복 선사에서 복음 선포로' 서철원 교수

5

주간충현에 게재된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읽으세요.

물에서 구원받은 이

| 초점 |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여된 은혜를 각 개인이 누리라

| 찬송 |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 본문 | 출애굽기 2:10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31 주일

1 월요일

☐ 이사야 16장

2 화요일

☐ 이사야 17장

3 수요일

☐ 이사야 18장

4 목요일

☐ 이사야 19장

5 금요일

☐ 이사야 20장

6 토요일

☐ 이사야 21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요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모세에 대해서 그가 믿음으로 태어났고, 믿음으로 장성하였으며,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믿음으로 유월절기와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기록했습니다(히 11:23~29).

- ※ 모세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모세 개인에게 적용된 삶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았습니까?

모세의 출생에 나타난 은혜

※ 모세의 출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 모세의 가족은 바로의 명령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 모세를 누인 역청으로 칠해진 갈대 상자(papyrus basket)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재료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시 119:11 _____

모세의 양육에 나타난 은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하고 그 안에 모세를 넣어 갈대 숲에 놓아두는 일 외에는 없었습니다. 진실로 부모의 손을 떠난 모세의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었습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모세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바로의 딸인 애굽의 공주를 통해서도 나타났습니다.

출 2:4~6 _____

만일 시녀가 먼저 모세를 발견하였다면 아마도 그들은 시녀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모세를 강물에 던졌거나 다른 신하들에게 보고했을 것이며, 모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딸이 먼저 모세를 발견하여 시녀들에게 갈대 상자를 가져오게 하였고, 모세를 본 공주는 불쌍한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생명에 대한 □□와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의 딸에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공주는 모세를 불쌍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바로의 명령에 따르면 죽임을 당해야 할 히브리 사람의 아이를 키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모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한 □□와 □□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다양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바로의 딸이 모세를 향하여 드러냈던 시선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 강도 만난 자를 도왔던 선한 사마리아인이 동일한 상황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 간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눅 10:30~34)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모세가 바로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고, 나일 강물과 악어로부터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 개개인 역시 악한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각 개인에게 적용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 3:16).

※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그리고 악한 마귀의 권세로부터 여러분 각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여주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눅 23:34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 ②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주의 생명 싸개 안에 늘 있게 하소서.
- ③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죄와 형벌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23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
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27

10월 10일

10월 10일

10월 10일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창세기 49:8~10)

네 형제의 찬송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창 49:8). 이 말씀은 장차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언약이 성취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대로 유다 지파를 통하여 다윗이 탄생하고, 다윗의 통일 왕국 이후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두 나라로 나누어지는데, 그 나라 중 유다 왕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십니다.

사자 새끼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이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창 49:9). 새끼 사자는 세월이 흐르면 백수의 왕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적 축복은 유다의 후손이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왕이 될 것을 예고하는 것으로서(삼상 17:34~37), 가장 악하고 강력한 마귀의 권세를 정복한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써, 마귀의 권세를 짓밟으셨습니다.

규가 떠나지 아니하며, 실로가 오시기까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창 49:10). 여기서 ‘규’(the scepter)는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하며, ‘실로’는 메시아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된 ‘모든 백성’은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복

찬송 -----	다같이
성경봉독 -----	사회자
메시지봉독 -----	사회자
기도 -----	다같이
주기도문 -----	다같이

남성 구역 예배 순서

수로 사용되었는데(the nations), 이것은 모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올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적 축복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지속될 권위를 나타내고, 마침내 메시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통치의 성격을 말해줍니다.

안식을 주시는 이

그렇다면 실로는 메시아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실로’는 ‘샬롬’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의미하는 실로는 자유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참된 평안은 영원한 승리로 말미암은 참된 자유로부터 주어지는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여호와 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사 61:1~2).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가져온 영원한 평화, 영원한 안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기도 하셨습니다(눅 4:16~21).

그렇습니다! 유다를 향한 축복, 즉 실로가 오시기까지의 축복의 예언은 장차 오실 참된 메시아와 그가 가져오실 평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사 9:6). 천사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지금 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눅 2:14). 그리고 마침내 이 땅의 참된 메시아로 오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안식을 선포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 11:28~30).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27).

영원한 찬송이 되실 이

유다에게 약속되었던 메시아는 장차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영원한 평화와 안식이 깃든 천국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마 4:17) 재림을 통해서 이 예언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사 2:4).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계 11:15). “이러므로 하나님 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 2:9~11).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14년 8월

Copyright© 2014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동하

편집인 | 장철환A

집필진 | 이원용

발행처 | 충현교회 편집국(전화 552-82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7길 40(역삼동)[비매품]